

〈통일문법〉 정립을 위한 북한 규범 문법 분석 시론*

장소원** · 김성규** · 황선엽** · 김현** · 문숙영**

I. 들어가기

남한과 북한의 언어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문규범의 바탕이 되는 문법이다.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단 이후 각기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문법 연구는 남한과 북한이 각기 어문규범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달라진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은 통일을 준비하는 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작업은 통일 시대에 필요한 〈통일문법〉의 체계 구축과 기술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남한과 북한의 학교 문법서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의 1단계에 해당한다. 남한과 북한의 학교 문법서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먼저 각각의 문법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작업은 우선 북한의 고등중학교 문법서 3권에 대한 분석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한의 국어 교과서에서의 문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행해져서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는 데 비해, 북한의 문법 교과서 자체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문법서에서 남한 문법과 문법 술어의 차이를 넘어, 문법 내용 요소에 대한 분류의 기준, 문법 요소에 대한 명명의 방식, 정의에 사용

*이 글은 2017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의 결과물이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되는 설명어의 차이, 실제 예시로 제시된 항목의 차이 등 규범 문법 전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차이를 찾아내고 그 배경을 분석해 내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작업은 남북한의 문법 교과서 비교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문법>의 기술을 위해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크게 4개의 분야로 나뉜다. 먼저 북한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지녀야 하는 언어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기술한 부분과, 어휘, 음운, 문법과 관계된 진정한 의미의 ‘문법’ 영역, 그리고 띄어쓰기와 구두점, 맞춤법 등 어문규범과 관련한 부분과 표현수법 부분이 그것이다.¹⁾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문법의 통일을 넘어 규범의 통일을 준비하게 될 것인데 남한과 북한의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야말로 통일된 문법 기술을 가능케 하며, 통일된 문법의 완성은 남한과 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해야 할 맞춤법과 표준어 등의 어문규범을 정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통일된 어문규범의 정비로 이어질 이 작업은 더 나아가 우리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통일 이후의 국어 생활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미리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II. 북한 문법서의 체계 및 언어관

1. 문법서의 체계

고등중학교 1~3학년에 사용되는 《국어문법: 고등중학교 1》, 《국어문법: 고등중학교 2》, 《국어문법: 고등중학교 3》(이하 <국어문법 1>, <국어문법

1)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국어문법서 3권의 체계와 함께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언어관을 묶어 정리하기로 한다.

2), 〈국어문법 3〉)의 전반적인 구성을 2002년 개정판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각 교과서의 내용을 크게 묶으면 ‘문화어, 어휘론, 음운론, 품사론, 토, 문장, 어문규범, (수사법)’의²⁾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분야별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문법서의 언어관이 드러나는 머리말부터 살펴하기로 한다.

• 어휘론

먼저 각 교과서는 제1장에서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며 ‘문화어’에 대한 내용을 다룬 후, 제2장부터 어휘론과 관련한 내용이 제시된다. 〈국어문법 1〉 제2~6장에서는 단어의 개념과 의미, 구성,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 고유어와 한자어 및 외래어, 문화어와 방언의 어휘 등을 다루고, 〈국어문법 2〉 제2~3장에서는 합성어와 파생어, 〈국어문법 3〉 제2~4장에서는 뜻빛갈(어감)과 성구 및 속담, 사전의 사용 방법을 다룬다.

• 음운론

음운론은 〈국어문법 1〉의 제7~9장, 〈국어문법 2〉의 제4~8장, 〈국어문법 3〉의 제5~7장에 해당한다. 〈국어문법 1〉에서는 모음과 자음의 종류와 특징, 단어의 소리마루(고저, 장단, 강약), 그리고 여러 음운현상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문법 2〉에서는 〈국어문법 1〉에 소개된 음운현상을 각 장에서 이어내기(연음)와 끊어내기(절음), ‘지, 치’로 되기(구개음화) 등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다룬다. 또한 문장을 발음할 때 지켜야 하는 점을 소개하는데, 이 내용은 〈국어문법 3〉에서 문장을 어떻게 끊어 읽는지, 언제 문장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 읽어야 하는지, 약센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등을 다룸으로써 구체화된다.

• 품사론, ‘토’와 ‘문장’

품사론은 〈국어문법 1〉의 제10장, 〈국어문법 2〉의 제9~15장에 해당한다. 〈국어문법 1〉에서는 품사의 개념을 소개하고, 〈국어문법 2〉에 이르러서 각

2) 〈국어문법 3〉에서만 수사법을 다루어 괄호로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된다.

품사, 즉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등을 자세히 다룬다. 〈국어문법 3〉에는 품사론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토’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국어문법 1〉에서 토의 개념과 종류가 소개되고, 각 토에 관한 내용이 〈국어문법 1〉과 〈국어문법 2〉에 걸쳐서 다루어진다. 〈국어문법 1〉에서는 격토와 맺음토, 이음토를, 〈국어문법 2〉에서는 도움토와 존경토, 복수토, 시간토 등 나머지 토를 다룬다. 〈국어문법 3〉에 이르러서는 토를 바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데에 그친다. ‘문장’과 관련하여서는 〈국어문법 1〉에서는 제17장에서 문장의 개념을 다루고, 〈국어문법 2〉에서는 제20~22장에서 문장의 유형, 문장성분의 개념, 그리고 단문과 복문에 대해 다룬다. 〈국어문법 3〉에서는 제9~13장에서 각 문장성분에 대하여 다룬 후, 문장 내 성분들 간의 어울림과 차례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진다.

• 어문규범과 수사법

마지막으로 〈국어문법 1〉 제18~25장, 〈국어문법 2〉 제23~29장, 〈국어문법 3〉 제14~17장에서 모두 어문규범에 대하여 다룬다. 대체로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문장부호법 순서로 다루어지는데, 띄어쓰기의 경우는 〈국어문법 2〉까지만 나타난다. 〈국어문법 3〉에서는 그 뒤에 수사법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18~25장에 걸쳐, 직유법과 은유법, 의인법, 과장법, 대구법 등 다양한 수사법을 다루고 있다.

〈국어문법〉 세 권은 모두 문화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말미에는 어문규범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어문법 1〉에서 각 분야의 개념을 소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국어문법 2〉는 〈국어문법 1〉에서 소개된 개념의 세부적인 사항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국어문법 3〉은 앞서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룬 후, 최종적으로 수사법을 다룬다. 교과서별로 각 분야를 다룬 규모는 각 단원의 내용을 최대한 남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략히 작성한 〈표 1〉을 참고할 수 있다.

〈표 1〉 〈국어문법 1〉, 〈국어문법 2〉, 〈국어문법 3〉의 체재

	〈국어문법 1〉	〈국어문법 2〉	〈국어문법 3〉	
문화어	1. 문화어	1. 문화어	1. 문화어	
어휘론	2. 단어의 개념과 의미	2. 합성어	2. 뜻빛갈(어갈)	
	3. 단어의 구성		3. 성구와 속담	
	4. 단어의 의미 관계			
	5. 단어의 종류	3. 파생어		4. 사전
	6. 단어의 종류			
음운론	7. 모음과 자음	4. 연음, 평파열음화	5. 높낮이	
	8. 고저, 장단, 강약	5. 동화, 구개음화	6. 휴지, 속도	
		6. 첨가, 탈락		
9. 단어 발음법	7. 경음화, 격음화	7. 소리빛갈(목소리)		
품사론	10. 품사의 개념		8. 문장 발음법	
		9. 명사	X	
		10. 수사		
		11. 대명사		
		12. 동사		
		13. 동사와 형용사		
14. 관형사				
토	11. 토의 개념 12. 토의 종류 13. 토의 구별 14. 격토 ³⁾ 15. 맺음토 16. 이음토	15. 관형사와 부사		
		16. 도움토	8. 토의 바로쓰기	
		17. 존경토 등		
		18. 규정토, 상황토		
		19. 상토, 바꿈토		
		문장		17. 문장의 개념
21. 문장성분의 개념	10. 보어, 상황어 등			
	22. 단문과 복문		11. 부름말, 느낌말 등	
어문규범	18~25	23~29	12. 문장 내 어울림	
			13. 문장성분의 차례	
수사법 ⁴⁾	X	X	18~25	

- 3) 이 표에서 쓰인 토에 대응하는 남한 용어는 대략 다음과 같다.
 격토-격조사, 맺음토-종결어미, 이음토-연결어미, 도움토-보조사, 존경토-선어말어미 ‘-시’, 규정토-관형사형어미, 상황토-부사형어미, 상토-피사동접미사, 바꿈토-명사형어미 및 서술격조사.
- 4) 어문규범과 수사법의 세부 단원 내용은 따로 적지 않았다.

2. 문법서의 언어관

북한의 고등중학교용 〈국어문법〉 세 권은 각기 다른 내용의 언어관을 펼쳐 보이고 있다. 1권 머리말의 제목은 ‘자랑스런 우리 말’이고, 2권은 ‘우리 말 문화어의 억센 뿌리’이며, 3권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품속에서 꽃 피난 우리 말 문화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제목에서 대충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듯이, 1권은 우리말이 왜 자랑스러운지를 네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 2권은 문화어가 성립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으며, 3권은 모든 사람이 문화어를 쓰기 위해 ‘맞춤법, 발음법,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법 등 통일적이고 과학적인 규범과 뚜렷한 레의법절을 갖춘 문화성이 높은 말과 글’을 김일성과 김정일이 만들어주었다는 내용이다.

먼저 제1권에 해당하는 〈국어문법〉에 실린 ‘1. 자랑스런 우리 말’의 내용은 고등중학교 1학년용 교과서로 1997년본과 2002년본이 쪽수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⁵⁾

북한에서 출판된 대부분의 책들이 그러하듯이 1학년용 〈국어문법〉도 머리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다.”라고 하여 김일성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며 시작된다.

《사실 우리 조선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 말은 류창하며 높고낮음과 길고 짧음이 있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잘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은 레의법절을 똑똑히 나타낼수 있기때문에 사람들의 공산주의도덕교양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말은 발음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과 글로써는 동서양의 어떤 나라 말의 발음이든지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습니다.》

5) 1997년판은 2~4쪽, 2002년판은 2~5쪽에 실려 있다.

이러한 교시 아래 전개되는 설명은 김일성 교시에 대한 풀이로, 조선말이 ‘아주 좋은 말’인 근거로 네 가지를 들고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그런데 바로 이 네 가지 근거가 이 책의 본문에 담겨있는 음운론적, 어휘적, 통사적 특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 첫째는 ‘류창하며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 매우 아름답다.’는 것으로 음운론적인 특징을 꼽고 있다. 둘째는 ‘표현이 풍부하다’는 것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와 잘 발달된 트를 그 예로 들고 있다. 셋째는 ‘례의범절을 똑똑히 나타낼수 있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 말들에서는 찾아보기 드문례절을 나타내는 수단과 수법이 잘 발달되어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근거는 ‘발음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으로 그 이유는 ‘말소리가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며 특히는 소리마디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조선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높은 긍지이며 자랑’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찾아주시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가꾸어주시고 꽃피워주시신 가장 우수한 우리 말을 아끼고 사랑하며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한다.’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머리말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뒤를 이어 나오는 국어문법 1권의 본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2권에 해당하는 〈국어문법〉에 실린 ‘1. 우리 말 문화어의 억센 뿌리’의 내용은 고등중학교 2학년용 교과서로 1997년과 2002년본이 쪽수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다.⁶⁾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넘어간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일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과 글을 지켜 내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 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 짓는 공통성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입니다. 피줄이 같고 한령토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6) 1997년판은 2~5쪽, 2002년판은 3~6쪽에 실려 있다.

-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일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과 글을 지켜 내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1학년용 〈국어문법〉이 한국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한 것이라면, 2학년용 교과서는 민족의 특징을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임을 인식하고, 일제 강점기(항일혁명시기)에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내고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독창적인 사상을 수립해주었음을 강조하고 있다.⁷⁾ 이어 이 사상은 ‘우리 나라를 빼앗고 우리 인민을 제놈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민족어말살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던 일제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 사상은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내고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 주는 휘황한 등대로, 지도적 지침으로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김일성은 주체적 언어사상을 창시하고 우리 말과 글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인민적 언어규범을 마련하고 혁명적 기풍을 세우는 등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적인 언어전통을 수립하였으니 ‘우리 말 문화어의 빛나는 전통을 잘 알뿐아니라 그것을 대를 이어 가며 견결히 옹호하고 영원히 빛내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된다. 따라서 이 글은 문화어가 성립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용 〈국어문법〉의 머리말은 1997년과 2002년판 모두 2~3쪽에 걸쳐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품속에서 꽃 피난 우리 말 문화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 글도 다른 두 권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교시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자기 나라 말의 부족점들을 없애고 우리 말을 더욱 정확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의 한 문장이다. 그 내용은 광복 후 김일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말과 글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김일성의 독창적인 언어사상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 제8조와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등에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3) ㄱ. 전국에 학교를 세워 모든 사람들이 우리말과 글을 배우도록 했다. 그 결과 문맹자가 없어졌다.
- 나. 한자를 전반적으로 쓰지 않도록 조치했다. 모든 출판물들에서 한자를 쓰지 않도록 했고, 한자폐지는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말과 글을 발전, 풍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ㄷ. 우리말과 글을 아름답게 다듬고 세련시키기 위한 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밀고 나갔다.
- ㄹ. 언어생활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웠는데, 이는 내용에서 당적이고 노동계급적이며 형식에서 인민대중이 알기 쉬운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기풍을 세운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 덕분에 북한 인민들의 언어생활에는 혁명적 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었고 이는 말과 글의 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졌는데, ‘말과 글의 문화성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문화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맞춤법, 발음법,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법 등 통일적이고 과학적인 규범과 뚜렷한 레의법절을 갖춘 문화성이 높은 말과 글이 되었다’고 결론 맺고 있다. 이는 3권의 주된 내용이 맞춤법, 발음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표현수법으로 구성되어 있음과 연관된다.

북한 〈국어문법〉 교과서 세 권의 머리말들은 모두 김일성과 김정은의 교시에 대한 해설 형식을 띠는 것이 특징이나, 그 내용은 일관성 있게 각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대한 의의와 배경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매 학년 제1과 머리말에서 한 학년 동안 무엇을 왜 배워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도입이라 평가할 만하다.

III. 음운, 통사, 형태

1. 음운

1) 문법 체재

〈국어문법〉 각권의 음운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 음운 부분의 단원 체재

권	단원 제목
〈국어문법 1〉	7. 모음과 자음 8. 단어의 소리마루란 무엇이며 여기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9. 단어의 발음법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국어문법 2〉	4. 이어내기와 끊어내기 5. 소리닿기와 《지, 치》로 되기 6. 소리끼우기와 소리빠지기 7. 뒤소리되기와 거센소리되기 8. 문장을 발음할 때 어떤 점을 잘 지켜야 하는가
〈국어문법 3〉	5. 문장에서의 높낮이선 6. 문장에서의 끊기와 말의 속도 7. 문장의 소리마루와 소리빛깔

〈국어문법 1〉에 3개 단원, 〈국어문법 2〉에 5개 단원, 〈국어문법 3〉에 3개 단원으로 모두 11개 단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79개 단원 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면수로도 전체 187면 중 27면으로 역시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국어문법 1〉은 개관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분절음 단위인 자음과 모음 및 초분절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고저, 장단, 강약을 설명하고 있다. 단위에 대한 서술에 이어 〈국어문법 2〉와 〈국어문법 3〉은 음운 현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각각 분절음 관련 현상과 문장에서의 초분절음 관련 현상에 할애되어 있다. 〈국어문법 1〉과 〈국어문법 2〉 각각의 마지막 단원에서는 이어지는 〈국어문법 2〉와 〈국어문법 3〉의 내용을 소개하는 듯이 배치되어 있다. 즉 〈국어문법 1〉의 9단원은 〈국어문법 2〉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분절음 관련 현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어문법 2〉의 8단원은 〈국어문법 3〉에서 다루어지는 문장에서의 초분절음 관련 현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⁸⁾ 이렇게 보면 내용 체재는 〈표 3〉과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8) 음운 부분 중 이 두 단원에만 유독 김정일의 교시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국어문법 1〉의 제9단원(Ⅸ): “우리 말은 발음이 풍부하여 그 어떤 힘들고 까다로운 발음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국어문법 2〉의 제8단원(Ⅷ):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말은 높고낮

〈표 3〉 음운 부분의 내용 구조

	음운 단위	음운 현상	
		개론	각론
분절음	Ⅰ7 모음과 자음	Ⅰ9 단어의 발음법	Ⅱ4 이어내기와 끊어내기 Ⅱ5 소리닿기와 ≪지, 치≫로 되기 Ⅱ6 소리끼우기와 소리빠지기 Ⅱ7 된소리되기와 거센소리되기
초분절음	Ⅰ8 단어의 소리마루	Ⅱ8 문장의 발음법	Ⅲ5 문장에서의 높낮이선 Ⅲ6 문장에서의 끊기와 말의 속도 Ⅲ7 문장의 소리마루와 소리빛갈

있다.

남한의 〈독서와 문법〉에 비교할 때, 〈국어문법〉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국어문법〉에서는 음운이나 음운 체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1개 단원(Ⅰ7)에서 자음과 모음의 개념만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독서와 문법〉은 음운 관련 학습 목표의 반이 이에 해당할 정도로 발음기 관과 발음법, 음성과 음운의 개념과 음운 체계 등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⁹⁾

둘째, 〈국어문법〉은 초분절음에 대한 내용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¹⁰⁾ 분절음 관련 단원이 6개 단원인데 초분절음 관련 단원이 그에 버금가는 5개 단원인바, 이는 〈독서와 문법〉과는 무척이나 다른 점이다. 〈독서와 문법〉에는 음장과 억양을 매우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음이 푹푹하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류창하고 매우 아름답다.”

9) 〈독서와 문법〉의 음운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바, 음운의 개념과 체계를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음성과 음운의 개념을 알고 국어의 음운 체계를 이해한다.
2. 국어의 음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올바른 발음 생활을 한다.

10) 억양이나 읽기, 말하기에서의 속도는 남한과는 달리 초등학교 때부터 강조되어 온 바이다(강보선 외 2017: 45).

2) 문법 내용

(1) 분절음 관련 내용

분절음의 단위인 음운 및 그 체계에 대한 설명은 매우 소략하다. 자음의 경우 조음 위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며, 조음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순한소리(평음), 거센소리(격음), 된소리(경음), 울림소리(공명음), 코안소리(비음)가 소개되어 있을 뿐,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에 대한 설명은 없다. 모음은 단지 홀모음(단모음)과 겹모음(이중모음)의 구분만이 빼놓아졌을 뿐이다. 이처럼 음운과 그 체계의 설명에 인색한 것은, 교육 내용으로서의 음운론을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표준적인 발음을 위한 도구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분절음 관련 음운 현상으로 다루어진 것은 이어내기(연음), 끊어내기(절음), 소리뺏기(동화), 《지, 치》로 되기(구개음화), 소리끼우기(첨가), 소리빠지기(탈락), 된소리되기(경음화), 거센소리되기(‘ㅎ’ 축약)이다. 남한의 교과서가 대체로 음운 변동의 유형에 따라 대치(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연음과 절음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일요일’과 ‘해빛아래’가 각각 전자와 후자의 예라고는 하면서도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점이 흥미롭다. 두 현상은 후행하는 요소가 형식 형태소이나 실질 형태소이냐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데,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이하 규범(1976))에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의 형태소가 ‘ㄱ, ㅋ, ㄴ, ㄷ, ㅌ, ㅊ, ㅍ, ㅌ’으로 끝나고 뒤의 형태소가 ‘아, 어, 오, 우, 애, 외’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에 이와 같이 발음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형태소의 성격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국어문법〉에서는 ‘아침에아침에, 산으로[사느로]’와 같은 곡용형뿐만 아니라 ‘숙영지[수경지, 발음[바름]’과 같은 단독형들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를 보면 형태소 결합에서의 연음과 절음이 라기보다는 표기에 대한 표준적인 발음법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여길 수 있다.

동화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구개음화를 동화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록 같은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 둘을 구분한 것은 동화주와 피동화음이 어떤 부류(자음 또는 모음)에 속하느냐에 따라 ‘닭기’와 ‘따르기’를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자음에 의한 자음 동화와 모음에 의한 모음 동화만이 닭기이며, 구개음화와 같은 모음에 의한 자음의 동화는 따르기에 속하는 것이다.¹¹⁾

(2) 초분절음 관련 내용

소리마루란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에 비해 두드러지게 발음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는바, 남한의 용어로서는 악센트(accent)나 돌출림(prominence)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리마루는 단어의 차원과 문장의 차원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 단어에서는 의미와 무관하게 그 위치가 정해져 있지만, 문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두드러지게 발음한다고 한다. 소리마루는 고저, 음장, 강세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단어에서의 고저와 강세는 남한 교과서에서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내용이다. 고조(高調)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자리에 놓인다고 한다. 2음절어인 경우 보통 첫째 음절에 놓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둘째 음절에 놓인다. 3음절어는 둘째 음절, 4음절 이상의 단어에서는 대체로 뒤에서 둘째 음절에 강세가 놓인다. 고저와는 달리 강세는 언제나 단어의 첫 음절에 온다고 한다.

음장은 남한의 교과서에서도 서술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성격은 전혀 다르다. 남한에서는 ‘말(馬)’과 ‘말:語)’와 같이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지닌 음장을 다루는 데 반해, 〈국어문법〉의 길이마루는 변별적 기능과는 무관하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 규범(1976: 79)에는 닭기와 따르기가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닭기: 단어안에서 어떤 말소리가 그 이웃에 있는 같은 종류의 말소리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와 같거나 비슷한 말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따르기: 단어안에서 어떤 말소리가 바로 그옆에 있는 다른 종류의 말소리의 영향을 받아 그에 보다 가까운 성질을 가지거나 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나는 말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4) 모든, 부지란히, 아장:아장, 환:히, 천찬:히, 몹:시, 살그마:니, 산들:산들

음장은 모든 단어에 다 놓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나 성질, 모양을 꾸며 주는 단어’에 많이 온다고 하며, 어두와 비어두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른바 표현적(expressive) 기능을 하는 장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¹²⁾

문장에서 실현되는 초분절음에 대한 총칭인 ‘억양’은 “문장을 발음할 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며 세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며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하는 말소리의 흐름”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서, 남한에서의 억양과는¹³⁾ 다른 개념이다. ‘억양’에는 높낮이선, 끊기, 속도, 문장에서의 소리마루, 소리빛갈이 있다.

높낮이선(억양)은 알림문, 시킴문, 추김문, 물음문, 느낌문 등과 같이 문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요구나 결심과 의지” 또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여 말할 때”와 같이 화용적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설명되어 있다.

끊기(휴지)와 관련하여서는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도 있음을 언급한 점이 흥미롭다.

- (5) ㄱ. 어제/읽은 책을 돌려 주었습니다. (읽은 책을 어제 돌려 주었다는 뜻)
 ㄴ. 어제 읽은 책을/돌려 주었습니다. (어제 읽은 책을 오늘 돌려 주었다는 뜻)

이 밖의 문장에서의 소리마루, 속도와 소리빛갈(음색)은 이른바 언어의 표현성을 살리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문장에서의 소리마루는 고저, 음장, 강세를 특정하지 않고 중요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을 두드러지게 발음하라고 하고 있다. 속도와 음색은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예를 들어

12) <조선말 대사전>에는 고저와 음장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 있다. 발그레하다²3³2¹.

13)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억양이 “음(音)의 상대적인 높이를 변하게 함. 또는 그런 변화.”라고 풀이되어 있다.

설명하고 있다: 느린 속도(시, 느린 장면, 짙은 정서, 숭엄하고 경건한 마음), 빠른 속도(소설, 급한 장면, 격동적인 마음, 청자가 고령일 때); 맑은 소리(대화 이외의 지문), 깊은 소리(남성), 얇은 소리(아동, 여성), 굵은 소리(남성, 큰 동물), 가는 소리(아동, 여성, 작은 동물).

2. 통사

1) 단원 체제

《국어 문법》 각권의 통사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사 부분은 제1권에 7개 단원, 제2권에 7개 단원, 제3권에 5개 단원으로, 모두 19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구성은 대체로 ‘조사와 어미, 문장 유형, 문장 성분, 문장 내 호응과 어순’ 순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남한의 〈독서와 문법〉과 비교하면 ‘문장 안에서의 단어나 표현들의 어울림’이나 ‘문장성분의 차례’를 독립 단원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2) 문법 내용

(1) 조사·어미의 분류 체계 및 용어의 차이

북한의 《국어 문법》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어미의 분류 체계 및 용어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대분류를 I열에, 중분류와 소분류를 각각 II열과 III열에 두었으나, 남북한 분류의 층위가 서로 달라 때로는 II열의 것과 III열의 것이 대응하기도 한다. 일례로 《국어 문법》의 I열에 있는 ‘체언토’는 남한 중등문법의 I열에 있는 ‘조사’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국어 문법》의 II열에 있는 ‘규정토’는 남한 중등문법의 III열에 있는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된다.

〈표 4〉에서 보이는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와 어미를 북한 문법에서는 ‘토’로 통칭하고, 조사는 체언토, 어미는 용언토로 부른다. 둘째, 남한에서는 조사를 크게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나누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크게 격토, 도움토, 복수토로 나누고, 접속조사는 구격토라 하여 격조사의 한 종류로 다룬다. 셋째, 남한 문법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표 4〉 통사 부분의 단위 체재

권	단위 제목
제1권	11. 토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구실을 하는가. 12. 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3. 토를 가려내는 방법 14. 격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5. 맺음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6. 이음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7. 문장이란 무엇인가.
제2권	16. 도움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7. 존경토, 복수토, 시간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8. 규정토와 상황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9. 상토와 바꿈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0.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추김문, 느낌문이란 어떤 문장인가. 21. 문장성분이란 무엇이며 문장성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2. 단일문과 복합문이란 어떤 문장인가.
제3권	9. 주어와 술어 10. 보어, 상황어, 규정어 11. 부름말, 느낌말, 끼움말, 이음말, 내세움말 12. 문장 안에서의 단어나 표현들의 어울림 13. 문장성분의 차례

망라하던 것을, 북한 문법에서는 그 의미 기능에 따라, 여격토, 위격토, 조격토로 세분한다. 넷째, 북한 문법에서는 보격조사가 없다. 다섯째, 북한 문법에서는 감탄문을 만드는 맺음토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섯째, 남한 문법의 보조적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일곱째,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가 함께 ‘상토’로 묶는다. 여덟째, 남한 문법에서는 ‘이다’를 격조사의 하나로 분류하나, 북한 문법에서는 이를 체언에 용언토가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바꿈토로 분류한다. 바꿈토에는 ‘-음, -기’도 포함되므로 북한 문법에는 명사형 어미가 없다. 아홉째, 북한 문법에서는 동작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 중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일부만 다음 (2)에서부터 살펴본다.

〈표 5〉 조사·어미의 분류 체계 및 술어 대조

(북한) <<국어 문법>> 1, 2, 3			(남한) 중등 문법			
I	II	III	III	II	I	
체언 토	도움토			보조사	조사	
	격토	주격토		주격조사		격조사
		X		보격조사		
		대격토		목적격조사		
		속격토		관형격조사		
		어격토 [에, 에게 께]		부사격조사		
		위격토 [에서, 에게서]				
		조격토 [로, 으로]				
		호격토		호격조사		
	구격토 [와, 과]			공동격조사		
복수토	들			접미사		
용언 토	맺음토	무엇을 알려 주려고 할 때 씀	평서형 종결어미	종결어미	어미	
		무엇을 물어 보려고 할 때 씀	의문형 종결어미			
		무엇을 시키려고 할 때 씀	명령형 종결어미			
		무엇을 자기와 함께 하라고 할 때 씀	청유형 종결어미			
		x	감탄형 종결어미			
		두루 쓰임, 억양으로 구별됨	해라제 종결어미			
	이음토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것	대등적 연결어미	연결어미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에 매이도록 이어주는 것이 있음.	종속적 연결어미			
		x	보조적 연결어미			
	규정토	[는, ㄴ(은), 르(을), 던]	관형사형 어미	전성어미		
	상황토	[게, 도록, 르수록, 듯, 듯이]	부사형 어미			
	상토	[이, 히, 리, 기, 우, 구, 추, 하우, 기우, 리우, 으기, 이기]		사동접미사 피동접미사		접미사
	바꿈토	[이(다)]	시술격 조사	격조사		조사
		[ㅁ(음), 기]	명사형 어미	전성어미		어미
존경토	[시]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시간토	[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겠]	미래, 추측			

(2) 상토와 시간토

북한 문법에서 상토는 피동과 사동의 접미사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상토는 동사에 붙어서 행동을 남에게 시킨다든가 남에게서 입는다든가 하는 뜻을 나타내는 토로 풀이된다. 임홍빈(1992: 534-535)에 따르면 相 범주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조선어문법(1949)이고, 상은 동사로써 표현된 행동과, 행동의 주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 범주로 정의되었으며, 조선어문법 1(1960)에서 상을 능동상, 사역상, 피동상으로 나누었다고 한다. 남한 문법에서 相(동작상)은 ‘-고 있다’나 ‘-어 있다’가 나타내는 시간성 범주를 지시하는 범주이다.

하나의 토가 피동과 사동을 두루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것도 큰 차이이다. 상토에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히우, 기우, 리우, 으키, 이키’가 있는데, 상토들 가운데에는 시킴을 나타내는 토와 입음을 나타내는 토가 따로 있지 않다고 하고 있다. 아래의 예처럼 하나의 상토가 어떤 때에는 시킴의 뜻을 나타내고 또 어떤 때에는 입음의 뜻을 나타내는 등 섞갈려 쓰인다는 것이다.

(6) 철이는 아버지에게 성적증을 보이었다. 둔덕에 올라서니 온 사내가 한눈에 보이었다.

남한 문법에서는 피동 접미사와 사동 접미사는 엄격히 구별한다. ‘이, 히, 리, 기’가 사동사도 만들고 피동사도 만들지만, 이 접미사가 동일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동화는 원래 동사의 결합가를 하나 줄이는 과정이고, 사동화는 원래 동사의 결합가를 하나 늘리는 과정이다. 이를 하나의 범주로 아우르는 것은, 사동과 피동을 ‘태’ 등의 하나의 범주로 묶어온 전통이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북한문법》의 시간토에는 ‘-었-’과 ‘-겠-’만 있다. ‘-더-’와 ‘-느-’는 독립적인 토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형사형 어미에는 ‘-던-’이 있지만,¹⁴⁾ 시간토에

14) ‘-던-’의 의미에 대해서는 ‘동사, 형용사, 체언에 다 붙어서 과거의 행동, 상태, 사실이 일정한 시간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는 ‘-다.’가 없고 ‘-더라, -더구나, -던데’ 등이 맺음토(종결어미)로 제시된다. 관형사질의 ‘-다.’와 주절 술어의 ‘-다.’의 의미 기능상의 차이가 일찍부터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를 나타내는 토도 별도로 세우지 않는다. 과거는 ‘-었.’이, 미래는 ‘-겠.’이 나타낸다고 하고, 현재는 따로 토가 없고 맺음토 그 자체가 현재시간의 뜻을 함께 나타낸다고 기술한다. 즉 ‘-다’가 맺음토이며, 예컨대 ‘본다, 보신다’ 자체가 현재를 나타낸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3) 맺음토와 이음토

북한 문법은 맺음토의 종류에 느낌문 맺음토가 없다. 문장 유형에 느낌문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알림문(평서문), 물음문, 시김문(명령문), 추김문(청유문)을 강한 느낌의 억양으로 발음하면 느낌문이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얼마나 와보고 싶던 백두산입니까?”는 물음문이면서 느낌문이다. 조선어문법(1949)에서부터 문장의 종류를 진술 목적에 따라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권유문으로 나누고, 이들 각 문장에 강렬한 감정이 동반할 때에는 모든 종류의 문장이 다 감동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임홍빈 1992: 573)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법은 보조적 연결어미를 별도로 두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남한은 연결어미를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나누고,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데 쓰는 ‘-아, -게, -지, -고’를 특별히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한다. 반면에 북한 문법은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말과 뒤의 내용에 매이도록 이어주는 말로만 나눈다. 부정문에 쓰이는 ‘-지’도 이음토의 두 번째 종류, 즉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에 매이도록 이어주는 종류에 넣고 있다.

(4) 문장성분

북한 문법에서는 문장성분에 목적어가 없고, 남한의 목적어는 보어로 포함한다. 그런데 격조사의 종류에는 대격토가 있고 보격토는 없다. 이는 보어의 범위가 남한 문법에서의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외에 수의 성분으로 처리되는 부사어까지 포함하기에, 보어만을 위한 전용 토가 있다고 보

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어에 대해서는 술어와 맞물리면서 ‘무엇을(누구를)?, 무엇에(누구에게)?, 무엇으로(누구로)?, 무엇과(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무엇이라고(누구라고)?’ 등 여러 가지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성분이라고 하면서, 대체로 용언 술어와 맞물리는 체언 성분으로서 주어와 목적어를 제외한 것은 다 보어라고 하고 있다. 아래의 예에서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보어이다.

- (7) ㄱ. 당과 국가에서는 학생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고 있다.
 ㄴ. 우리는 당의 배려에 최우등으로 보답하겠다.
 ㄷ. 철수의 키는 영호와 같다.
 ㄹ. 우리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였다.
 ㅁ. 세상사람들은 예로부터 조선을 동방례의지국이라고 불러 왔다.

북한 문법에서는 부사어의 상당수가 보어로 분류되면서, 상황어(부사어)는 다소 그 범위가 줄어든다. 상황어란 술어와 맞물리면서 ‘어떻게? 얼마나?’ 등의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성분을 말한다.

- (8) ㄱ. 우리는 하나를 배워도 실속 있게 배워야 한다.
 ㄴ. 삼지연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다.
 ㄷ.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임흥빈(1992: 559)은 조선어문법[1949]에서 주어, 술어, 규정어 외의 성분을 모두 보어로 부른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서, 보어는 직접 객체의 보어, 간접 객체의 보어, 전성의 보어, 장소의 보어, 시간의 보어, 원인과 수단의 보어, 양태와 정도의 보어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후 보어의 범위와 종류가 줄기는 했으나, 상황어와의 구별은 계속 과제가 되었던 듯하다.

북한 문법에서는 독립어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며 남한에서는 부사어로 분류되는 접속부사도 독립어로 포함한다. 부름말과 내세움말 외에, 문장의 앞이나 가운데에 이야기되는 내용의 출처나 그에 대한 보충적 설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끼워 넣는 끼움말,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이음말도 독립어의 예로 제시한다.

- (9) 느낌말: 그렇다, 우리는 조선소년단원이다.
끼움말: 일기예보에 의하면 래일은 개이쨌다누나.
이음말: 그리고, 첫째로, 둘째로, 다음으로, 한편, 그뿐만 아니라, 그렇기때문에, 이와 함께, 이와 같이 등

(5) 단일문과 복합문

남북한 문법은 단문과 복합문에 대한 정의도 다르다. 〈북한문법〉에서는 ‘주어-술어’의 맞물림 관계가 한 번 있는 문장을 단일문이라 하고, ‘주어-술어’의 맞물림 관계가 두 번 또는 그 이상 있는 문장을 복합문이라고 한다. 주어가 하나 있고 그것과 맞물림 관계를 맺는 술어가 둘 또는 그 이상인 문장, 혹은 주어가 둘 또는 그 이상 있고 그것들과 맞물림 관계를 맺는 술어가 하나인 문장도 단일문이다.

- (10) 가. 우리는(주어1) 분단모임을 끝내고(술어1) 협동별로 달려나갔다(술어2).
나. 모내기철에는 사무원들이(주어1), 군인들이(주어2) 그리고 학생들이(주어3) 농촌을 로력적으로 지원한다(술어1).

3. 형태

1) 단원 체재 및 용어

〈국어문법〉의 형태 관련 내용은 크게 단어에 대한 것과 품사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권의 단어 관련 단원들은 다음과 같다.

〈1권〉에서는 단어의 개념과 구성방식을 먼저 기술하고 이어서 단어의 종류를 의미관계(뜻같은말, 반대말, 소리같은말), 어종(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어류(문화어, 사투리)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2권〉에서는 〈1권〉의 3장에서 다루었던 단어의 구성방식을 구체화하여 어근(말뿌리)과 합성어(합친말, 접사(앞붙이, 뒤붙이)의 개념을 통해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의 구별을 기술하였다. 〈3권〉은 단어의 실제 쓰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어휘들의 어감 차이, 관용구와 속담, 사전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남한 문법 교과서에서는 사전 이용법과 같은 내용은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6〉 국어문법 단어 관련 단원

권	단원 제목
제1권	2. 단어와 그 뜻 3. 단어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4. 뜻같은말, 반대말, 소리같은말 5.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6. 문화어어휘와 사투리어휘
제2권	2. 말뿌리와 합친말 3. 앞붙이와 뒤붙이
제3권	2. 단어의 뜻빛갈 3. 성구와 속담 4. 문화어사전을 보는 방법

용어는 남한과 같은 것이 많고 설사 다르더라도 대부분 한자어가 고유어로 표현된 것이어서 이해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다. 가령 ‘뜻같은말동의어, 반대말반의어, 소리같은말동음어, 말뿌리어근, 합친말합성어, 앞붙이접두사, 뒤붙이접미사, 뜻빛갈어감/뉘앙스’와 같이 고유어가 많이 쓰이고 있으나 대부분 남한에서도 소통될 만한 것들이다. 또한 한자어 용어들은 남한과 거의 같지만 ‘성구(관용구)’와 같이 차이를 보이는 예도 있다. 그러나 ‘성구(成句)’는 남한에서도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으므로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목차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본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로는 ‘형태부형태소, 덧붙이접사’ 등이 있는데 ‘형태부’는 남한에서는 ‘형태소’의 의미가 아니라 ‘형태소 및 단어 형성 등을 관장하는 부문’의 의미로 쓰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각권의 품사 관련 단원들은 〈표 7〉과 같다.

〈1권〉에서는 품사의 개념과 품사의 종류를 8가지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하였다.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여 품사에 넣어 처리하는 남한과 달리 조사가 빠져 8개의 품사가 설정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내용에 있어서는 남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권〉에서는 각 품사들을 하위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다른 품사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각 품사들의 문법적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9~12장까지는 각기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를

〈표 7〉 국어문법 품사 관련 단원

	단원 제목
제1권	10. 품사란 무엇이며 품사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1) 품사란 무엇인가 2) 품사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1) 명사란 무엇인가 (2) 수사란 무엇인가 (3) 대명사란 무엇인가 (4) 동사란 무엇인가 (5) 형용사란 무엇인가 (6) 관형사란 무엇인가 (7) 부사란 무엇인가 (8) 감동사란 무엇인가
제2권	9. 완전명사와 불완전명사 10. 수량수사와 순서수사 11. 사람대명사, 가리킴대명사, 물음대명사 12. 자립동사와 보조동사 13. 동사와 형용사는 어떻게 다른가 14. 관형사와 앞붙이는 어떻게 다른가 15. 관형사와 부사는 어떻게 다른가
제3권	해당 내용 없음

하위분류하여 설명한 것이고 13~15장은 동사와 형용사, 관형사와 접두사, 관형사와 부사의 차이를 기술하여 해당 품사들의 특징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3권〉에는 품사 관련 단원이 들어 있지 않다.

용어는 대체로 남한과 같아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감탄사’를 ‘감동사’라고 하며 ‘사람대명사인칭대명사, 가리킴대명사지시대명사, 물음대명사 [의문대명사, 앞붙이]접두사’와 같이 고유어 용어가 쓰이나 소통의 문제는 없다. ‘완전명사, 불완전명사형식명사, 수량수사양수사, 순서수사서수사’는 남한의 현재 학교 문법의 용어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나 남한의 문법서에서도 쓰이는 용어인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2) 문법 기술 내용의 특징

남한 교과서와 비교할 때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차이는 북한의 교과서 내용들은 문법 체계나 이론의 설명보다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의 사용을 강

조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단원의 구성에서 <3권>(2. 단어의 뜻빛갈, 3. 성구와 속담, 4. 문화어사전을 보는 방법)은 전적으로 문법이론 보다는 언어 사용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단원에서도 문법 설명에 이어 실제 언어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교과서 전체의 분량을 고려할 때 그 내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이는 북한의 문법 교육이 이론적인 체계를 교육하기보다는 실제 언어 생활을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

<3권>의 단원들은 전적으로 언어 생활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3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언어 생활이나 쓰임이 강조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권> 4. 뜻같은말, 반대말, 소리같은말

소리같은말의 유형을 ‘글을 쓰는것까지 꼭 같은 것(비와 눈, 눈과 코의 눈), 말할 때에만 소리가 같고 쓸 때에는 다른 것(낮, 낮, 낮), 소리가 어떤 토를 붙였을 때에만 달라 지고 다른 토를 붙였을 때에는 같아 지는 것(땅을 파고, 물건을 팔고; 땅을 판다, 물건을 판다)’으로 세분하여 설명한 후 소리가 같아서 구별되지 않아 이해에 지장을 줄 경우 다른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화용적인 측면의 교육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 <1권> 5.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가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기본을 이룬다고 하고 고유어는 한자어나, 외래어보다 알기 쉽고 친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고유어를 잘 살려 써야 하며 한자어와 외래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속옷-내의, 남새-채소, 손기척-노크’와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외래어가 쌍을 짓고 있을 때는 고유어를 쓰고 한자어나 외래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1권> 6. 문화어어휘와 사투리어휘

문화어어휘는 우리말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만을 선택한 것이며 인민들의

마음에 맞게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것이므로 문화성이 높은 반면, 사투리어휘는 거칠고 문화성이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투리어휘를 쓰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 자체의 문화성도 떨어지므로 반드시 문화어어휘를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⁵⁾

• 〈2권〉 10. 수량수사와 순서수사

수량수사와 순서수사의 개념적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한 후 숫자로 써 놓은 수사를 읽는 다양한 방식을 여러 예를 들어 설명하고 단위 명사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예들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즉 수사를 읽을 때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를 잘 알아야 하며 잘못 발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2권〉 11. 사람대명사, 가림김대명사, 물음대명사

사람대명사 ‘나, 너, 저’가 조사 ‘의’나 ‘가’와 통합할 때 ‘내, 네, 제’가 되는바 ‘내가’를 ‘나가’로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사람대명사를 사용할 때 말차림을 똑바로 갖추어 뒷사람에게 말할 때 ‘저, 저회’를 써서 예절 바르게 말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물음대명사 ‘누구’는 ‘가’ 앞에서 ‘누가’가 되고 ‘의’ 앞에서는 ‘뉘’로 될 수 있다는 것과 물음대명사 ‘무엇’은 보통 이야기할 때 말소리가 바뀌어 ‘뭇, 무어’로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여 실제 대명사의 쓰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한의 문법 기술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¹⁶⁾

-
- 15) 남한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써야 하지만 방언 역시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간직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다만 남한에서도 과거에는 표준어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16) 어문 규범의 차이로 인한 문제들과 사전에서 자모의 배열 순서 차이 문제 등은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다.

장단을 구별하지 않는다. 동음어[소리같은말]를 설명할 때 ‘말을 탄다, 말을 잘한다’의 ‘말’과 ‘비와 눈, 눈과 코’의 ‘눈’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바 장단의 구별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젊은 세대의 언어에서도 역시 장단이 구분되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적으로는 장단을 가르치고 있고 동음어 설명에서 특히 장단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동음어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분하지 않는다. 말뿌리들이 토 없이 그냥 합쳐서 이루어진 예로 ‘봄가을, 여기저기, 새봄’ 같은 통사적 합성어 외에 ‘감들다, 올바르다’와 같은 비통사적 합성어를 같이 예시하면서 이들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인칭대명사(사람대명사)에 3인칭을 설정하지 않는다. 사람대명사를 ‘나, 너, 너희, 저, 저희, 우리’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정의하였는바 ‘그, 그녀’와 같은 3인칭 대명사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 그, 저’에 대해서는 ‘사람이나 동물, 그밖의것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인바 ‘가리킴대명사’로만 설명을 하고 있다.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 책, 그 동화집, 저 잡지’의 ‘이, 그, 저’를 모두 가리킴대명사로 설명하고 있는바 체언 앞에 쓰인 ‘이, 그, 저’를 모두 대명사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수관형사를 설정하지 않고 ‘한, 두, 세, 네’까지도 모두 수사로 다루고 있다. 수사인 ‘하나’가 체언 앞에서 ‘한’으로 바뀌어 나타난다고 파악하며 ‘둘→두, 셋→세/석/서, 넷→네/넉/너, 다섯→닷, 여섯→엿, 스물→스무’도 마찬가지로 설명하였다.

속담을 격언과 리언으로 구분한다. 다음은 어문규범과 표현수법의 4장이다. 속담 중 ‘벼이삭은 여물수록 고개를 숙인다’와 같이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격언이라 하며, ‘빛 좋은 개살구, 굵어부스럼’과 같이 무엇을 풍자, 조소하거나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리언이라 한다고 하였다. 격언은 주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점잖은 말로 표현되는 데 반해 리언은 문장이 아닌 단어결합으로 되어 있고 가벼운 웃음이 섞인 말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라 하였다.

IV. 어문규범과 표현수법

1. 어문규범

1) 북한의 <어문규범>

(1) 북한 <어문규범>의 변화

북한의 어문규범과, 어문규범의 교육을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선말규범>의 구성을 이해하고 북한의 문법 교과서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서는 일단 남한의 규범 및 남한의 교과서와 비교하기 위한 전 단계로 북한의 국어과 교과서를 통해 규범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의 <조선말규범집>은 1966년에 공포되었고, 이것을 1987년에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2010년에 다시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전면적인 개정 이외에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개정이 진행되었다. 1987년 전면적 개정 시 개정되고 2000년에 다시 개정되었으며 2003년에도 또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2003년 개정 띄어쓰기가 <조선말규범집(2010)>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는 1987년과 2010년의 규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기에 앞서 우선 비교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조선말규범집(2010)>의 구조를 보기로 한다. 이는 <표 8>과 같다.

(2) ‘맞춤법’ 및 ‘문장부호법’의 변화

다음 <표 9>는 맞춤법 규정의 변화 예이다. 전반적으로는 예시 단어의 배열 순서 등에서 약간의 변화가 보일 따름이고 다음과 같은 변화 정도가 목격된다.

맞춤법의 경우 <조선말규범집(1987)>과 비교해 보면 예시 ‘제4장 합친말의 적기’ 부분에서 항목에 대한 수정이 발견된다. <조선말규범집(1987)>에서는 제14항에 부기 되어 있던 다음이 내용이 <조선말규범집(2010)>에는 제15

〈표 8〉 〈조선말규범집(2010)〉의 내용

<p>맞춤법(총칙, 제1장 조선어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제2장 형태부의 적기, 제3장 말줄기와 토의 적기, 제4장 합친말의 적기, 제5장 앞붙이와 말뿌리의 적기, 제6장 말뿌리와 뒤붙이(또는 일부 토)의 적기, 제7장 한자말의 적기: 전체 총칙 및 7장 27항 구조),</p> <p>띄어쓰기규정(총칙, 제1항 토뒤의 단어나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는 띄어쓴다, 제2항 하나의 대상이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마디들은 토가 끼여있거나 품사가 달라도 붙여쓴다, 제3항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쓰되 마디를 이루면서 잇달리는것은 매 마디마다 띄어쓴다, 제4항 수사는 백, 천, 만, 억, 조단위로 띄어쓰며 수사뒤에 오는 단위명사와 일부 단어는 붙여쓴다, 제5항 불완전명사(단위명사 포함)는 앞단어에 붙여쓰되 그뒤에 오는 단어는 띄어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항 단어들사이의 맞물림관계를 고려하여 뜻을 이해하기 쉽게 띄어쓰기를 할수 있다: 전체 총칙 및 6항 구조)</p> <p>문장부호법(총칙, 제1항 우리 글에서 쓰는 부호의 종류와 이름, 제2항 점(.), 제3항 두점(:), 제4항 반점(;), 제5항 물음표(?), 제6항 느낌표(!), 제7항 이음표(-), 제8항 풀이표(-), 제9항 줄임표(..., …, …, …, …, …, …), 제10항 인용표(«»), 제11항 거듭인용표(◇), 제12항 쌍괄호와 꺾쇠괄호((), []), 제13항 인용표와 쌍괄호안에서의 부호사용법, 제14항 밑점(.....), 제15항 숨김표(×××, □□□, ○○○ 등), 제16항 같음표(〃), 제17항 물결표(~), 제18항 제목글에서의 부호사용법, 제19항 대목이나 장, 절, 문단 등을 가르는 부호와 그 차례, 보충: 전체 총칙 및 18항과 보충)</p> <p>문화어발음법(총칙, 제1장 모음의 발음, 제2장 첫소리자음의 발음, 제3장 받침자모와 관련한 발음, 제4장 받침의 이어내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5장 받침의 끊어내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6장 된소리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7장 «ㅎ»과 어울린 거센소리되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8장 닳기현상이 일어날 때의 발음, 제9장 소리끼우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10장 약화 또는 빠지기 현상과 관련한 발음: 전체 총칙 및 10장 30항 구조)</p> <p>조선글의 쓰기</p>
--

향으로 설정되면서 〈조선말규범집(1987)〉에 제15항에 있던 내용 중 일부와 합쳐지고, 〈조선말규범집(1987)〉 제15항의 나머지 부분은 〈조선말규범집(2010)〉의 제14항에 부기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맞춤법’에서 ㉠과 ㉡처럼 바뀐 원인은 ‘수태지, 암태지’ 등의 표기를 바꾼 데 원인이 있다. 그런데 표기를 바꾸었지만 발음의 문제는 남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문화어발음법(2010)〉에서 별도의 항목(제26항)을 만들어서 ‘암태지, 수강아지’ 등을 [암태지], [수강아지]로 발음하게 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문장부호법’의 경우는 약간의 수정만 보일 뿐이다. 제3항의 두점(:)과 제4항 반점(;), 제9항 풀이표(-)의 설명 내용을 다듬었으며, 제4항의 반두점(;)을 생략한 정도라고 하겠다.

(3) ‘문화어발음법’의 변화

‘문화어발음법’에도 수정이 보인다.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표 9〉 북한의 맞춤법 개정 내용

		1987	2010		
맞 춤 법	제14항 부기	그러나 오늘날 말뚝리가 뚜렷하지 않은것은 그 본래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레: 며칠, 부라 부라, 오라버니, 이틀, 이태	제15항	합친말에서 오늘날 말뚝리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그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레: - 며칠, 부라부라, 오라버니, 이틀, 이태 - 마파람, 휘파람, 쯤쌀, 안팎	㉠
	제15항	합친말을 이룰적에 <ㅂ>이 덧나거나 순한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는 것은 덧나고 바뀌어가는대로 적는다. 레: 마파람, 살코기, 수개 , 수돼지 , 쯤쌀, 휘파람, 안팎 【붙임】 소리같은 말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는다. 레: 셋별 - 새 별(새로운 별),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 비바람(비와 바람)	제14항 부기	<안, 수>와 결합되는 동물의 이름이나 대상은 거센소리로 적지 않고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는다. 레: 수돼지 , 암돼지 , 수개 , 암개 , 수기와 , 암기와	㉡

화어발음법(2010))에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설명을 간결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문제가 되는 한자음의 ‘ㄹ’ 초성 발음의 기준을 수정하였다.

㉠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생략되어도 문제가 없다. ㉡은 ‘ㄹ’을 모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대렬, 규률’을 [대열], [규률]의 발음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도 ㉡과 마찬가지로 한자음의 초성 ‘ㄹ’ 문제이고 ㉢과 ㉣ 역시 한자음의 초성 문제이다. 이 발음이 남한과 가장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인데 2010년의 개정으로 [싱량], [힘력], [싱료], [청류벽]과 같은 발음 이외에는 남북한이 동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식량, 협력, 식료, 청류벽’의 발음에서 [싱녕], [힘녜], [싱뇨], [청뉴벽]도 인정되므로 실제로는 차이가 없어진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한자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났던 표기와 발음의 차이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하겠다.

〈표 10〉 문화어발음법 개정 내용

	〈문화어발음법(1987)〉		〈문화어발음법(2010)〉			
문화어 발음법	제2장 제6항	«ㄴ»은 모든 모음 앞에서 «ㄴ»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남너, 남남, 녀사, 뇨소, 뉴튼, 니탄, 당노병		삭제		㉔
	제2장		제2장 제5항 부기	그러나 한자말에서 «렐, 룰»은 편의상 모음 뒤에서는 [열]과 [울]로, «르»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는 [널], [룰]로 발음한다. 레 - 대렐대열, 규룰[규울] - 선렐선널, 정렐정널, 선룰[선널]		㉕
	제4장 제11항	모음 앞에 있는 들받침은 왼쪽받침을 받침소리로 내고 오른쪽받침은 뒤의 모음에 이어서 발음한다. 례: 닛을[닛술], 닭이[달기], 퉁을[툴술], 밝은[말근], 밝아[발바], 짚음[절믄], 훑어[홀터], 엇으네[엔즈네], 없엄업슴, 읊어[을페]	제4장 제9항	모음 앞에 있는 받침은 뒤소리 마디의 첫소리로 이어서 발음한다. 1. (내용 및 예시 일부 생략) 레: <u>닭을[달글]</u> , <u>꽃이[골시]</u> 등		㉖
	제6장		제6장 제12항	[ㄱ, ㄷ, ㅂ]으로 나는 받침소리 뒤에 오는 순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레: 국밥[국뽕](예시 생략)		㉗
	제6장 제14항	동사나 형용사의 줄기의 끝받침 «ㄴ, ㄷ, ㅂ, ㅁ»에 이어내는 토나 뒤붙이의 순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시 생략)	제6장 제13항	동사나 형용사의 말줄기끝의 받침 «ㄴ, ㄷ, ㅂ, ㅁ»과 «ㄹ»로 발음되는 받침 «ㄹ, ㅂ, ㄷ» 뒤에 오는 토나 뒤붙이의 순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례: (아기들) 안대안따 (중간 예시 생략) <u>쿵계굴계</u> , <u>얹꼬얹꼬</u> , <u>훑대훑따</u> , <u>훑게갈끼</u>		㉘
	제6장 제14항 붙임	그러나 사역 또는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상토 «기»일 적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레: 감기대[감기대], 남기대[남기대], 신기대[신기대], 안기대[안기대]	제6장 제13항	삭제		㉙
	제8장 제23항	일부 굳어진 단어인 경우에는 적은대로 발음함으로써 닳기현상을	제8장 제22항	그러나 형태부들의 경계에서는 뒤의 «ㄹ»을 «ㄴ»으로 발음		㉚

〈문화어발음법(1987)〉		〈문화어발음법(2010)〉		
	인정하지 않는다. 례: 선렬, 순렬, 순리의		한다. 례: 순리의(순니의), 발전 령발전녕	
제8장 제24항	그러나 일부 굳어진 단어인 경우에는 그 <ㄴ>을 <ㄹ>로 발음한다. 례: 곤넌골란, 한나선할라산	제8장 제23항	삭제	㉔
		제8장 제24항	반침소리 [ㅁ, ㅇ] 뒤에서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례: 목란 [몽난], 백로주뱅노주 그러나 모음 <ㅏ, ㅓ, ㅕ, ㅗ>의 앞에서는 [ㄴ] 또는 [ㄹ]로 발음할 수도 있다. 례: 식령상냥/식령, 협력(협넉/협력), 식료성뇨/식료, 청류벽(청뉴벽/청류벽)	㉕
제8장 제25항	이상과 같은 닳기현상밖의 모든 <영향관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례: 밥그릇(밥그릇) (웁음)/막뜨름(그름), 안기대(안기대) (웁음)/양기대(그름) 선바위(선바위) (웁음)/섬바위(그름), 잡히다 [자피대] (웁음)/[재피대] (그름) (이하 생략)		삭제	㉖
		제9장 제26항	<<암, 수>>가 들어가 만들어진 단어의 발음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내용 생략) 예시: 암돼지 [암돼지] (이하 예시 생략)	㉗

또한 ㉖에서는 〈문화어발음법(1987)〉에서 별도로 제시되어 있던(제11항) 겹받침의 발음이 〈문화어발음법(2010)〉에서는 일반적인 항목(제4장 9항)의 예시로 바뀌었으며 〈문화어발음법(2010)〉에는 ‘벗이(벗아→버디), 꽃이(꽃아→꼬디)’와 같은 호격에 대한 부기가 첨가되었고, 〈문화어발음법(1987)〉에서는 예시로만 제시되었던 ‘검열(겨멸), 답안(다반), 8.15(파리로)’와 같은 한자어들에 대해 별도의 부기로 발음을 설명하고 있다.

㉗의 〈문화어발음법(2010)〉의 제12항은 없던 항목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ㄱ, ㄷ, ㅂ’ 뒤의 경음화라는 기본적인 경음화를 추가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㉔의 <문화어발음법(2010)>의 제13항은 <문화어발음법(1987)>의 제14항을 간략화하면서 수정한 것인데, 수정 방향이 옳았다고 하기 어렵다. 서로 관련이 없는 현상을 하나의 현상으로 제시하고, 꼭 필요한 피사동의 발음에 대한 조항을 없앴기 때문이다.

㉕은 ‘맞춤법’의 변화에 따른 발음 규정이다. 맞춤법에서는 ‘암돼지’처럼 형태를 원형대로 적지만 발음이 [암돼지]로 나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4) ‘띄어쓰기’의 변화

<띄어쓰기>는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규정이다. 1987년에 ‘총칙 및 5장 22항’으로 되어 있던 규정이 2000년에는 장 구분이 없어지고 ‘총칙 및 9항’으로 바뀌었으며 2003년에는 다시 ‘총칙 및 6항’ 구조로 재편되었다. 1987년에 ‘제1장 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1항~4항), 제2장 수사, 대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5항~9항), 제3장 동사, 형용사와 관련한 띄어쓰기(10항~12항), 관형사, 부사, 감동사와 관련한 띄어쓰기(13항~16항), 제5장 특수한 말, 특수한 어휘에서의 띄어쓰기(17항~22항)’처럼 품사 중심으로 구분되었던 규정이 2000년에 ‘제1항 토는 웃단어에 붙여 쓰며 그뒤의 단어는 띄여 쓴다, 제2항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는 띄여 쓴다, 제3항 두개이상의 말마디가 결합되어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덩이로 된것은 품사가 다르거나 토가 끼여도 붙여 쓴다, 제4항 불완전명사는 앞의 단어에 토가 있어도 붙여 쓰며 그뒤의 단어는 띄여 쓴다, 제5항 나라이름과 정당, 사회단체, 기관, 기업소이름, 직제이름, 대중운동, 사변, 회의 이름 등은 붙여 쓴다, 제6항 성명, 직명 뒤에 오는 부름말, 칭호는 붙여 쓴다, 제7항 수 및 수량, 순서와 관계되는것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8항 학술용어는 토가 끼여도 붙여 쓴다, 제9항 특수하게 쓰이는 어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와 같이 실용적 규정으로 바뀌었다.

그 후 2003년에는 ‘제1항 토뒤의 단어나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는 띄여 쓴다, 제2항 하나의 대상이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마디들은 토가 끼여 있거나 품사가 달라도 붙여쓴다, 제3항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쓰되 마

다를 이루면서 잇달리는것은 때 마디마디 띄여쓴다, 제4항 수사는 백, 천, 만, 억, 조단위로 띄여쓰며 수사뒤에 오는 단위명사와 일부 단어는 붙여쓴다, 제5항 불완전명사(단위명사 포함)는 앞단어에 붙여쓰되 그뒤에 오는 단어는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항 단어들사이의 맞물림관계를 고려하여 뜻을 리해하기 쉽게 띄여쓰기를 할수 있다'와 같이 더욱 간결하게 수정되었다.

2000년의 1항과 2항이 2003년에 1항으로 합쳐졌으며, 2000년의 3항은 2003년의 2항으로, 2000년의 4항은 2003년의 5항으로 2000년의 5항, 6항, 8항은 2003년의 3항으로 2000년의 7항은 2003년의 4항으로 재편되고 2000년의 9항이 없어지면서 2003년에는 6항이 신설되었다. 특히 2003년의 마지막 조항에서 '중세 언어연구(중세에 진행된 언어연구)'와 '중세언어 연구(중세의 언어)'를 모두 가능하게 하였는데 북한의 '띄여쓰기' 규정의 변화 방향은 독해력 향상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변화는 다음에서 보듯이 〈조선말규범집〉의 '띄여쓰기' 부분에 제시된 교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 (11) 띄여쓰는것과 붙여쓰는것을 잘 조절하면 우리의글도 훨씬 보기 쉽게 될것입니다. 타자를 칠 때도 반드시 한 단어는 붙여쓰도록 하고 단어와 단어사이에는 일정한 사이를 두어야 합니다.(김일성 교사-1987년 조선말규범집 띄여쓰기) / 우리는 앞으로 띄여쓰기를 잘 고쳐 사람들의 독서력을 올릴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 교사-2000년 조선말 띄여쓰기규범)

2) 〈국어문법〉 속의 어문규범

(1) 〈국어문법〉의 구성

북한 〈국어문법〉에는 어문규범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문화어 발음법'은 '음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맞춤법, 띄여쓰기, 문장부호'를 중심으로 보기로 한다.

1997년과 그 이후의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국어문법 1〉, 〈국어문법 2〉의 경우 '맞춤법'과 '문장부호'에서는 제시된 용례에 변화가 보이는 정도이지만 '띄여쓰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2000년에 '띄여쓰기'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수정된 것이다. 〈국어문법 3〉은 1997년 판과 2002년 판

에 전혀 차이가 없다. 일단 2002년 판에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점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어문법>에 반영된 <조선말규범>

다음으로 <국어문법>이 <조선말규범>을 어떤 설계 하에서 교육하는지 보기로 한다. <표 11>에서 보듯이 <국어문법 1>에서는 ‘맞춤법, 문장부호,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문장부호’는 규범에 제시된 전체 부호가 거의 망라되어 있는데 <국어문법 1>에서 문장의 종류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부호를 다루고 있다.

‘띄어쓰기’는 ‘명사, 수사, 대명사 / 동사, 형용사 / 관형사, 부사, 감동사’의 순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1997년의 교과서나 2000년의 교과

<표 11> <국어문법> 속의 규범

	맞춤법	문장부호	띄어쓰기
국어 문법 1	* 맞춤법과 그 기본원칙 * 맞춤법의 주요규칙들	* 문장부호란 무엇이며 그것은 왜 치는가 * 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 인용표는 어떤 때 치는가	* 띄어쓰기와 그 원칙 * 띄어쓰기의 주요 규칙들 * 명사는 어떻게 띄어 쓰는가 * 수사와 대명사는 어떻게 띄어 쓰는가
국어 문법 2	* 합친말과 줄어든말은 어떻게 적는가 * 뒤불이 <<이>>가 붙어 만들어진 본말은 어떻게 적는가 * 소리가 달라진 말과 받침이 달라지는 말은 어떻게 적는가 * 울림소리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적으며 <<ㅅ>>받침은 어떤 때 쓰는가	* 거듭인용표, 줄임표, 풀이표, 괄호, 꺾쇠괄호, 두점, 반두점은 어떤 때 치는가	* 동사와 형용사는 어떻게 띄어 쓰는가 * 관형사, 부사, 감동사는 어떻게 띄어 쓰는가
국어 문법 3	* 뒤불이 <<이>>와 <<히>>는 어떻게 갈라 적는가 * 소리가 같거나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말과 <<ㄱ>>가 들어간 말은 어떻게 적는가 * 받침단어들은 어떻게 적는가	* 이음표, 밑점, 물결표, 같음표, 숨김표는 어떤 때 치는가	

서나 마찬가지이다. 2000년에 ‘띄여쓰기’가 개정되어서 그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내용 서술을 바꾸기는 하였지만 구성은 여전히 1987년의 ‘띄여쓰기’가 가지고 있는 구성을 따르고 있다. 교과서의 틀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내용에 대한 수정만 가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맞춤법’은 〈국어문법 1〉에서 기본원칙을 보여주고 ‘주요규칙들’에서는 〈국어문법 2〉와 〈국어문법 3〉에서 다루는 내용을 모두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국어문법〉을 통해 배우는 맞춤법의 도입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국어문법 3〉에 있는 ‘받침단어들은 어떻게 적는가’는 〈국어문법 1〉에서 매우 소략하게 다룬 형태음소적 표기 방법에 대한 심화된 내용의 서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어문법〉의 ‘맞춤법’ 부분은 〈규범〉이 가지고 있는 ‘맞춤법’을 전부 포괄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것은 원칙으로 처리하고, 틀리기 쉬운 것들 중심으로 서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실용성에 바탕을 둔 교과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관규(2016)에 의하면 남한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어문규정이 하나의 단원에 배치되어 있으며 분량으로 볼 때 전체 교육 내용 중 10.5%를 차지하는 반면, 북한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어문 규정이 전체 19개 단원에 배치되어 있으며 분량으로 볼 때 교육 내용 중 2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국어 교육에서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 표현수법

1) 체재와 의의

북한의 고등중학교용 국어문법서 총 3권 가운데 ‘표현수법’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법을 다루는 부분은 〈국어문법 3〉의 뒷부분이다. 총 25개 과 가운데 표현수법의 정의와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18과부터 물음법과 느낌법을 다루는 25과까지 총 8개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다.

(12) 18. 표현수법이란 무엇이며 여기에는 어떤것이 있는가41
19. 직유법과 은유법42
20. 의인법과 야유법44
21. 과장법과 되풀이법46
22. 대구법과 대조법47
연습49
23. 별립법과 짐춤법50
24. 자리바꿈법과 내세움법51
25. 물음법과 느낌법53
연습54

북한에서 한 학년의 교과서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수사법을 다루고 있는 현상은 남한의 교과서에서는 《국어 I》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화법과 작문》 교과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데,¹⁷⁾ 그 이유는 〈국어문법 3〉의 머리말에 드러나 있다.

- (13)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와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우리 말 규범을 새로 정하고 말과 글의 레의법절을 똑똑히 지키도록 하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그리하여 우리 말과 글은 맞춤법, 발음법,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법 등 통일적이고 과학적인 규범과 뚜렷한 레의법절을 갖춘 문화성이 높은 말과 글로 되었다.¹⁸⁾

즉, ‘말과 글의 레의법절을 똑똑히 지키도록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뚜렷한 레의법절을 갖춘 문화성이 높은 말과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현수법’을 잘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법을 잘 활용하는 일은, 통일적이고 과학적인 규범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며, 이들을 잘 익히면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더 잘 복무할수 있는 말과 글로,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평양문화어’로 꽃피게 된다는 것이다.

17) 남한의 국어 관련 교과서에서 수사법을 다루는 양상은 북한과 매우 달라서 뒤에서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18) 밑줄 필자

2) 표현수법의 정의와 효과 및 종류

북한의 〈국어문법 3〉에서 표현수법의 정의와 종류를 설명하는 부분은 17과로 ‘표현수법이란 무엇이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로 41쪽부터 42쪽에 해당한다. 이 글에 따르면 표현수법이란 ‘표현을 꾸미는 방법’을 말로,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어휘와 문장에 담아 표현하는데 같은 내용을 담은 어휘나 문장도 그것을 어떻게 꾸며서 표현하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 효과를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표현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세상에 수많은 민족어가 있지만 우리 말처럼 표현이 풍부한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김일성의 언급을 인용한다. 이어 표현이 풍부한 우리 말의 우수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표현수법을 잘 알고 그것을 옹기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며 표현수법을 잘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것은 첫째, 말과 글에서 자기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보다 두드러지게 강조할 수 있고 자기의 사상 감정과 사물현상을 눈에 보듯이 생동하게 나타낼 수 있다, 둘째, 말과 글의 음악성과 사상정서를 더욱 풍만하게 하여 듣기도 좋고 읽기도 좋게 할 수 있다, 셋째, 문학예술작품을 분석할 때 그것이 어떤 표현수법으로 쓰여졌고 어떤 표현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18과는 표현수법의 정의에 이어 그 효용성을 충실히 설명한 후 표현수법의 종류를 간단히 들며 연습문제로 마무리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수사법 부분의 개관에 해당하는 만큼 정의와 사용 효과, 그리고 그 종류를 소개하고 있어 그 자체로 충분히 완결된 구성을 보인다.

3) 표현기법의 실제

이어지는 19과부터 25과까지는 구체적인 표현 기법을 내용상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들끼리 둘씩 묶어 해설하고 있다.

직유법과 은유법을 묶고 의인법과 야유법, 과장법과 되풀이법, 대구법과 대조법을 묶어 설명한 후 일차적인 연습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유사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어 벌림법과 점층법, 자리바꿈법과 내세움법, 물음법과 느낌법을 제시한 후 이차적인 연습문제를 풀도록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차적인 연습문제는 각각의 수사법, 혹은 짝을 이루는 두 개의 수사법을 활용하는 연습으로 개별적인 수사법을 연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차적인 연습문제는 직유법과 은유법, 의인법과 야유법, 과장법과 되풀이법, 대구법과 대조법을 총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부분으로 각 표현수법들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한다든지, 주어진 글에 어떤 표현 수법이 사용되었는지 찾아보게 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마지막에는 특정 수사법을 활용해서 짧은 텍스트를 완성하도록 함으로써 문장 차원을 넘어서서 통 글에서 주어진 수사법을 활용하는 연습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연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표현기법을 정리하고 그 의의를 설명해보기로 한다.

(1) 직유법과 은유법

먼저 직유법과 은유법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표현기법인데, 각각에 대해 ‘어떤것을 다른것에 직접 비기는 표현수법’, ‘나타내려는 말은 숨겨 두고 다른 뜻을 가진 말을 써서 그것을 표현하는 수법’으로 정의하면서 시작한다. 몇 개의 예를 보인 후 직유법은 흔히 «-같이, -같은, -처럼, -듯, -듯이, -만큼, -마냥, -인양»과 같은 단어나 토를 리용하여 꾸미는 반면, 은유법은 나타내려는 말은 숨겨 두고 다른 뜻을 가진 말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꾸민다고 하여 직유법과 은유법은 다 같은 비유법이기는 하나 ‘직유법에서는 비겨 지는 말과 비기는 말이 다 나타나고 은유법에서는 비기는 말만 나타난다’고 하여 이 둘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구별하고 있다. 직유법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단어와 문법적인 형태를 직접 제시하고 연습에 활용하도록 한 것은 매우 효율적인 교육방법이라 할 만하며, 직유법과 은유법이 같은 목적을 지닌 비유법이지만 외면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직접 비교해서 보여주는 방식은 매우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 직유법에 대해서는 ‘어떤것을 그와 비슷한 다른것에 직접 비기는 수법인것으로 하여 표현하려는것을 눈에 보는듯이 생동하게 나타낸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구와 속담을 비롯한 말과 글에서 널리 쓰인다고 그 효과를 설명하였고, 은유법에 대해서는 《천리마를 타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 뻐다.》, 등과 같은 성구, 속담들의 예를 들면서 은유법은 말과 글의 표현을 매우 풍부하게 해주고 뜻을 깊게 하는 수법이기 때문에 문학작품에서 많이 쓰인다고 그 쓰임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의인법과 야유법

의인법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의인’은 ‘사람이 아닌것을 사람처럼 만든다는 것’이라고 단어의 뜻을 풀이한 후 의인법이란 ‘동물이나 자연현상을 사람과 같이 말하게도 하고 행동하게도 하는 표현수법’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이어 의인법이 활용되는 곳으로 자연풍경을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기는 데와 시나 소설, 동화나 우화들을 들고 이는 정서를 풍부히 해주는 표현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한다.

의인법과 같이 다루어지는 야유법에 대해서는 ‘단어나 문장의 뜻을 정반대로 표현하여 부정적인것을 빈정대고 비꼬아 주는 수법’이라고 하며, 문학작품에서 부정적인 인물을 조소하고 비판할 때 효과적으로 이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수사법은 문학작품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녀 같이 묶인 것으로 보인다.

(3) 과장법과 되풀이법

과장법과 되풀이법이 같이 묶여 제시되는 이유는 두 가지 수사법이 모두 강조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과장법은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실지 사실보다 더 보태거나 줄여서 표현하는 수법’으로 정의된다. 과장법이 실현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사실보다 더 보태거나 줄여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꾸미기도 하고 비유법으로 꾸미기도 한다’며 각각의 예를 제시한 후 이 과장법은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을 허구적으로 과장함으로써 말과 글의 표현성을 높이는 수법인 만큼,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요구하는 말과 글에서는 쓰지 말아야 하며 문예작품에서도 진실성이 없이 사실을 함부로 과장하는 일

이 없어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되풀이법의 정의는 ‘단어나 문장을 되풀이하는 표현수법’인데 단어나 문장을 되풀이하는 방법으로 꾸민다고 하여 무엇을 반복할 것인지 그 대상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되풀이법의 표현 효과로는 첫째, 문장에서 뜻을 힘 있게 강조하는 것과, 둘째, 격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 셋째, 말과 글의 음악적 율동을 보장하는 것을 들고 있다.

(4) 대구법과 대조법

이 책에서 대구법과 대조법을 같이 묶어 다루는 이유는 48쪽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대조법은 대구법에서와 같이 하나의 말마디와 말마디를 마주 세워 꾸미기도 하고 여러개의 말마디와 표현을 마주 세워 꾸미기도 하며 문장과 문장을 마주 세워 꾸미기도 하기 때문’으로 두 가지 수사법이 모두 ‘무엇과 무엇을 마주 세워 꾸밈’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이 둘은 의미내용상 어떤 말마디와 표현을 마주 세우는가 하는 점에서는 다르다고 하여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구법이란 ‘내용상 연관을 가진 말마디나 표현을 서로 짝을 맞추어 마주 세우는 수법’이라 정의되는데 대구법을 꾸미는 첫째 방법은 하나 혹은 여러개의 말마디와 말마디를 마주 세워 짝을 맞추는 방법이고, 둘째로는 시작품 등에서 두 줄씩 서로 짝을 맞추는 방법으로 꾸미거나 한줄 건너 다음 줄과 짝을 맞추는 방법으로 꾸미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말마디, 표현, 문장이 대구법의 대상이 됨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대구법은 말과 글에서 감정정서와 음악성을 더욱 풍부히 하여 주는 표현 효과를 지녀 표현수법들과 함께 문예작품 특히 시에서 많이 쓰인다고 설명한다.

대조법은 ‘뜻에서 서로 반대되는 말마디나 표현을 맞세워 놓는 수법’으로 정의하며 대조법 역시 대구법에서와 같이 ‘하나의 말마디와 말마디를 마주 세워 꾸미기도 하고 여러개의 말마디와 표현을 마주 세워 꾸미기도 하며 문장과 문장을 마주 세워 꾸미기도 한다’고 그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서 특히 대조법은 사상과 주장을 명백히 드러내 보이는 표현적 효과를 지닌다고 마무리한다.

(5) 점층법과 벌림법

점층법과 벌림법이 같이 묶여 제시된 이유는 이 두 수사법이 공통점을 지니는 동시에 약간의 차이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먼저 점층법과 벌림법의 같은 점은 두 수사법이 다 여러 개의 말마디들을 연이어 벌려 쓴다는 점이며, 다른 점은 어떤 말마디들을 연이어 벌려 쓰는가 하는 점이다. 즉 벌림법이 내용상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말마디들을 연이어 벌려 쓰는 표현수법이라면 점층법은 뜻이 점차 커지거나 작아지는 방향으로 여러 개의 말마디들을 연이어 벌려 쓰는 표현수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강한 공통점을 지닌 두 개의 수사법을 같이 설명하는 방식은 교육 효과를 한층 배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벌림법은 그 표현성이 높기 때문에 말과 글 특히 문예작품에서 많이 쓰인다고 지적하며 말과 글의 사상을 강하게 드러내거나 말과 글의 울동을 보장하고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정서적으로 펴나가는 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뜻이 점차 커지거나 작아지는 방향으로 여러 개의 말마디들을 연이어 써 나가는 표현수법을 말하는 점층법은 특히 문예작품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고 있다.

(6) 자리바꿈법과 내세움법

자리바꿈법이란 문장을 짤 때 일부러 말마디들의 자리를 바꾸어 놓는 표현수법을 말한다. 이때 앞에 놓이는 말마디는 주로 술어로, 이 수사법은 표현을 힘 있게 만들어 주고 운율을 잘 살려 주는 표현적 효과를 지닌다.

내세움법이란 문장에서 강조하려는 말마디, 즉 내세움말을 특별히 앞에 내세워 두드러지게 하는 표현수법을 말한다. 내세움법이 쓰일 때 내세움말이 놓였던 자리에 그것을 되받는 말로 흔히 지시대명사, 즉 ‘가리킴대명사’가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세움법의 효과는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힘 있게 강조해 주고 그 사상을 뚜렷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7) 물음법과 느낌법

이 책에서 수사법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물음법은 단순한 의문법이 아니라 수사적인 효과를 노리고 표현되는 의문법에 제한된다. 따라서 ‘물음문으로써 여러가지 감정정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수법’이라고 정의되는데 감정정서를 강하게 나타내고 글을 읽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 뿐 아니라 생각을 깊게 하여 주는 높은 표현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느낌법이란 느낌문으로 감정정서를 더욱 힘 있게 드러내 보이는 표현수법이다. 감탄형어미를 취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종류의 문장에나 강한 느낌이 담기면 느낌법의 문장이 되지만 많은 경우 《는가, 던가, 냐, 라》와 같은 토가 붙는 물음문으로 꾸미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물음법과 느낌법이 겹친 문장이라고 한다고 설명한다. 그밖에 느낌법은 시킴문과 추김문, 즉 명령문과 청유문으로도 꾸미는데 느낌법은 감정정서를 힘있게 드러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게 하는 표현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물음법과 느낌법을 공부한 후 접하게 되는 일차적인 연습문제는 주어진 글에 포함된 표현기법을 찾거나 특정한 표현기법을 사용해서 짧은 글을 짓는 것이고, 이차적인 연습문제는 복수의 표현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글을 짓거나 상당히 긴 길이의 글에서 표현수법들을 찾고 그 효과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어서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쌓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V. 마무리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후 처음에는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통일안을 중심으로 어문 규정의 기초를 삼았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바뀌어 가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규범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문 규범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학교 문법을 구성하였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1960년대 이후 주체 사상의 대두와 맞물려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민족의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문규범도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개정이나 수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문법도 그러한 쪽으로 구성되어 왔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학교 문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데 통일 시대에 맞는 통일 문법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기초작업으로서 북한의 학교 문법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해하고 이를 남한의 것과 면밀히 대조하여 검토하는 일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북한의 고등중학교 1~3학년에서 사용되는 2002년 개정판 《국어문법: 고등중학교 1》, 《국어문법: 고등중학교 2》, 《국어문법: 고등중학교 3》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북한의 문법 교과서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문법 교육은 국어 문법의 체계를 학습시키기보다는 실생활에서의 사용을 강조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의 습득을 강조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운론 분야에서는 음운의 체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말하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고저, 음강, 강세와 같은 초분절을 관련 내용이 많이 다루어진다. 남한 교과서에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표현 기법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형태론이나 통사론 분야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나 음운론만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형태론 분야는 용어의 일부 차이가 있으나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남북한의 차이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품사론 논의가 해방 이전 문법 연구의 중요 분야였고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음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통사론 분야는 세부적으로 자못 큰 차이를 보이는바 통일 문법 제정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문 규범 분야는 띄어쓰기의 차이가 두드러지나 북한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띄어쓰기의 개정이 이루어진바 완강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문 규범 관련 내용들이 모두 그러해서 얼마든지 절충과 개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통일론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 뒷받침될 수도 있으나 그 기반은 민족에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언어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어문규범 및 학교 문법의 통일 문제가 핵심적인 연구거리

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의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보신, 권순희, 주재우, 정진석, 김진숙(2017), 남북한 초등학교 문법교육 내용 비교, *우리말글* 72, pp. 31~65.
- 고영근(2001), 남북 규범문법의 통일 방안, *새국어생활* 11권 1호, 국립국어원.
- 곽충구(2001),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에 관련된 몇 문제, *새국어생활* 11권 1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연구원(1992), 북한의 언어 정책, 국립국어연구원.
- 국어연구소(1989),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I. 발음·맞춤법 편), 국어연구소.
- 권재일(2015), 남북한 언어문화의 현실과 통합 방안, 광복70주년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국립국어원·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김기중(1983), *조선어사학*, 료녕인민출판사.
- 金英培(1988), 문화어의 음운 현상, *국어생활* 15, pp. 21~32.
- 김차균(1991), 북한의 문화어 음운 연구의 성과, *언어* 21, pp. 7~108.
- 리상벽(1964), *화술 통론*,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출판사.
- 리상벽(1975), *조선말화술*, 사회과학 출판사.
- 서상규·박석준(2005), 북한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원.
- 연규동(2015), 남과 북 공통 표기법의 조건, *새국어생활* 25권 2호, 국립국어원.
- 이관규(2016),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비교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1, 국어교육학회.
- 이기동(2011), 북한의 말소리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38, pp. 209~233.
- 이익섭(2002), 띄어쓰기의 현황과 전망, *새국어생활* 12권 1호, 국립국어원.
- 이현복(1995), 남북한 언어학 및 음성학 분야 학술 용어의 비교 연구, *한글* 229, pp. 133~150.
- 전수태(2001), 서로 다른 표기법의 통일 방안, *새국어생활* 제11권 1호, 국립국어원.
- 전수태(2004),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전수태(2005),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국립국어원.
- 정성희(2015), 북한 뉴스 발화의 음운적 특성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란(2010) ‘문화어학습’으로 본 북한의 문법 교육, *국어교육연구* 25, 서울대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최호철·홍종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최호철(2001), 서로 다른 어휘의 동질성을 위한 방안, 새국어생활 11권 1호, 국립국어원.

한용운(2015), 남과 북의 사전, 새국어생활 25권 2호, 국립국어원.

황인권(2000), 남북한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음운현상 고찰(1), 韓南語文學 24, pp.67~99.